

세계적 위치 확립 위한 힘의 과시

— 釣魚臺·西沙群島의 영유권 분쟁을 통해 본 중국의 해양정책

I. 해상·해양정책의 역사

일찍이 한무제 시기부터 해상 교통과 무역이 발달하였는 바 견고한 선박, 범선과 타축의 발전, 계절풍의 이용 등으로 일본은 물론 조선, 동남아등지를 항해하였다. 북송때에는 기존의 천문항해보다 훨씬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는 지남침이 발명되어 이미 11세기에 중국의 항해술이 완비되었다. 명·청시대에는 콜롬부스의 항해보다도 반세기 이상이나 앞선 위대한 항해가인 정화(鄭和)가 60여척의 선박과 2만7천여명으로 구성된 선단을 이끌고 동남아까지는 물론 아라비아 페르시아만, 아프리카동부까지 7차례 걸친 대항해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이와 같은 대규모적인 항해나 통교는 불구하고 선박을 소각하고 해외교류를 단절시키는 강력한 해금·해방정책을 실시하였다.

해금·해방정책은 원(元)부터 간혹 실시되었으나 명(明)이 건립되면서 정치적인 요소가 없던 것은 아니나 해구(海寇)나 왜구(倭寇)의 횡행을 막고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연해(沿海)에 거주하고 있던 연해민들에게 생계곤란을 겪게하였다. 따라서 연해민들은 해적화되고 사무역을 행할 뿐 아니라 화교로 성립되는 가장 커다란 원인이 되었다.

명초기에 200년간에 걸친 해금 정책은 공박(貢舶) 대신에 사무역인 밀무역이 15-16세기에 성행하였는데 양해(嘉靖) 연간(1522-1566)의 왜구, 해구의 극성 속에서 광둥에 포르투갈이 등장하여 사무역을 이룩한 이후에 朱載堉(1566-1644)에 이르러 해금, 해방정책은 서구식민제국주의의 침입과 아편전쟁에서 다시 거론되었으나 모두 철저하게 실패하고 개항을 맞았던 것이다. 이후 계속된 반봉건 반식민주의상태에서 전 통적으로 대륙을 중시하던 중국의 해양에 대한 인식은 대전환을 맞이하여야 했던 것이다.

II. 현대 중국해군의 성립

1921년 7월1일 창설된 중국공산당은 남창(南昌)에서 봉기(1927. 8. 1)에 실패하였으나 이들을 중국 인민해방군의 건군절(建軍節)로 삼고있다. 2만5천KM의 대장정(大長征)(1934. 10)이후 遵義會議(1935. 1)에서 지도권을 확립한 모택동은 인민전쟁론과 지구전론에 바탕을 둔 공산당군을 중국인

민해방군으로 개칭(1947. 3. 24)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1949. 10. 1)을 전안문광장에서 선포하게 되었다. 한국전쟁(1950. 6. 25-1953. 7. 27)참전기간까지의 해방군은 엄격한 3대 규율과 8항주의(主義)에 따라나 미국군의 압도적인 화력과 항공전력의 근대적인 정규군은 대진열도(大陣列島)작전(1954. 5-55. 2), 금문도(金門島)사건(1958. 7-10), 티베트반란(1953. 3)출동, 중·인 국경 분쟁(1959. 8-62. 11), 중·소 국경분쟁(1969. 3)의 진보도(珍寶島)사건, 서사군도(西沙群島)해전(1974. 1. 15-20), 중·월(中·越)전쟁(1979. 1. 17-3. 15)등에서 그 약간의 위력을 보여왔다.

현대중국 해군의 발전은 대체적으로 맹아(萌芽)시기(1949. 3-1949. 9), 형성(形成)시기(1949. 10-1958. 8), 정돈(整頓)시기(1959. 9-1954. 9), 발전(發展)시기(1954. 10-현재)로 나누고 있다.

III. 현대 중국의 해양인식

중국은 1970년대 중반이래 임포와 모택동의 사망, 문화대혁명의 4인방 추종 등으로 등소평체제가 확립되면서 개혁 및 실용주의의 노선 선택과 정치적 영향력이 미약했던 해군출신들의 특색들을 계기로 새로운 해양전략관을 갖게 되었다. 1980년대 들어와서 미·중 군사협력 특히, 공산정권 수립 이래 최초로 미국의 해군 함정 3척이 산둥반도의 청도항(靑島港)을 방문한 사실(1986. 11. 5)과 중국 해군의 SSBN 보유, 항공모함 건조등 군사력 건설을 통해 대양해군(大洋海軍)을 지향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반봉건·반식민 상태에서 해양에 대한 인식전환 이뤄

실용주의·개방노선으로 대양 진출 모색

이것은 첫째, 지리적인 면에서 주요한 해상교통로가 핵심수역이 지나해에 면해 天惠의 良港, 대륙 깊숙히 연결되는 내수로(內水路)의 발달, 어업자원과 광물자원이 풍부한 황해(黃海)와 자해의 방대한 대륙붕의 존재이다. 이는 1970년대 중반이후 현대화를 달성하려는 대의 개방적 실용주의 정책노선 선택 및 중·소 분쟁의 지속과 소련의 극동 군사력 증강에 대한 중국의 국가목표인 생존보장, 영토보존 및 회복, 경제변형 세계적 위치확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중국의 국가 목표는 이상군 중심의 전략이었으나 국방부 산하에 각종 위원회의 병립으로 해양적 요소가 증가되었고 남지나해 도서(島嶼)에 대한 영유권 분쟁 해결노력은 대외지향적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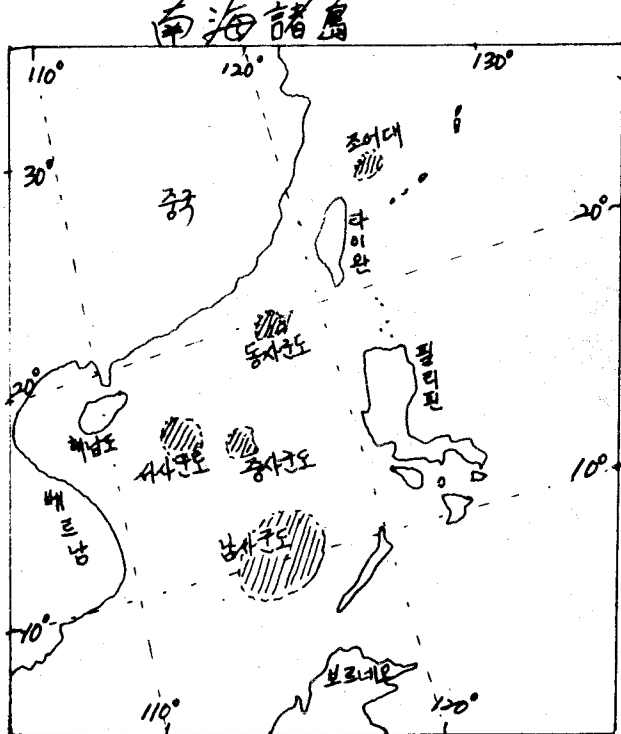
해양진출적인 변화로 해양력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둘째, 태평양에서 소련세력의 해양위협에 대한 배제로 우수리강 국경분쟁(1969. 3)으로 중, 소 관계의 악화과 소련해군의 세계적 규모의 훈련(1975. 4)을 통한 소련의 등장과 동시에 소련의 베트남 기지확보는 동남아 및 남지나해에 중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킨 것으로 중국의 주요 해상 교통로를 위협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소련의 관계로 볼 때 황해나 발해만에 대한 위협은 다소 감소되었고 대만의 해군 군사력을 무시할 수 없다.

세째, 영토회복면에서 대만을

와 최근 조아대(釣魚臺)군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성립된 것이다.

1) 서사군도(西沙群島) 서사군도(동경 110~115도, 위도 5~17도)는 남사(南沙), 동사(東沙), 중사(中沙)로 나뉘어 남지나해에 위치하는데 바시해협과 말라카해협, 홍콩과 싱가포르를 잇는 해상 루트가 통과하는 전략상의 요충지이다. 부근해역에는 해저자원과 어업자원이 풍부하고 최근에는 해저석유의 매장지로 주목 받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등 연안국들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소련해군이 태평양, 인도양에 진출하면서 전



력적으로도 극히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되었다.

중국해군에 의한 서사군도의 공격(1974. 1)은 남베트남이 남사군도를 자국의 속토(屬土)에 편입(1973. 9)시키면서 시작되었다. 서사군도의 영흥도(永興島)를 기지화한 중국의 어선대가 침함도(琛航島)에 상륙하려하자 남베트남측의 저지(11월)가 있었다. 이에 중국은 편입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1974. 11)하였고 남베트남의 해군함정이 감전도(甘泉島) 부근에서 중국의 어선을 끌어나가 사건이 다시 발생(1. 15)하였다. 침함도 부근해역에 집결해 있던 양국의 해상부대는 점전(1. 19일)을 벌였다. 중국해군은 코마급 미사일정 3~4척을 포함한 1척, 남베트남해군은 소해정을 포함한 7

척으로 구성된 전투에서 남베트남이 패배하여 중국해군이 침함도해역을 장악했다. 또한 중국의 미그 21 전투기 4대가 산호도(珊瑚島), 감전도(甘泉島), 금은도(金銀島)를 폭격(1. 10)하고 해군 1개대대가 상륙하여 이들을 점령하였다. 이 전쟁에서 남베트남군이 패배를 하여 서사군도의 모든 도서는 중국의 영역으로 되었다. 서사군도의 해전이 소규모였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중국대륙 연해에서만 행했던 중국해군이 외양(外洋)에 대한 관심을 처음으로 보인 것으로 해양정책의 변화라는 면에서 역사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조아대(釣魚臺, 尖閣列島) 침략(清末)부터 중국의 영토이던 것이 청·일 전쟁후 중국의 약화로 인하여 고하(古寶)라는 일본인이 어장을 경영(1885년)하던 지역을 일본이 오키나와현으로 편입(1895년)한 후 2차대전 후에 미국의 일본전주로 말미암아 중국에 반환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지역은 8개의 섬으로 구성된 무인도인데 해저에 석유매장이 확실시되는 지역으로 본래 중국의 섬으로 명기되어 있다. 1970년에도 조아대를 둘러싸고 일본과 대만의 마찰이 일어났으나 대만은 중국과 해외 화교들의 지지와 함께 보조운동(釣魚運動)을 전개하여 일본을 공동의 적으로 만드는 중화민족의 단결력을 과시하였다.

1990년 10월 21일 대만체제개혁의 성화를 조아대에 올렸다가 가져오려는 상징적인 행사에 일본의 우익단체들이 공식적인 항로표지인 등대를 세우고자 한것에 일본이 호응하여 군함과 군용기등을 동원한 무력시위로 성화 봉송이 좌절되고 말았다. 이에 중국및 대만 정부와 홍콩, 해외의 화교들은 조아대를 보호할것에 공동보조를 취하고 일본은 즉각 철수할것을 강력하게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였지만 일본은 국제법으로나 역사적으로 일본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들어 6·4 천안문사태 이후 각국의 경제제재조치의 해제와 일본의 대중개발(對中開發)자관(중국)의 경제적 안정과 경제현대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1993년까지 총 8, 100억을 제공)을 적극적으로 재개하고자하는 중국의 방침과 외교적인 노력으로 영토분쟁을 해결해야한다고 거듭 촉구하는 것으로 볼때 무력적인 충돌까지는 확대되지 않을 것 같다.

IV. 결론에 대신하여

중국의 전통적인 해금(海禁), 해방(海防)정책은 중국적 세계시서의 확립을 목표로하여 명 이래 200여년간 계속되어 왔으나 왜구와 해적들의 횡행과 16세기 이후의 서세동경(西勢東傾)으로 인하여 중국의 해양정책은 커다란 변혁을 겪어야 했다. 아편전쟁을 겪고 양무운동(洋務運動)에 주력을 하였으나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중국공산당이 성립된 이후에서야 전통적인 대외관에 약간의 변혁을



장준하의 민족통일 전략

‘모든 통일은 좋은가? 그렇지 않다. 통일이라는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며, 그것이 민족사의 전선이라면 당연히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그 속에 실현될 것이다.’ (민족주의자의 길 중에서) 민족적 통일노선의 선구자라는 장준하! 그의 통일노선은 오늘날 활발한 민족적 통일논의의 속에서도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장준하는 잊혀진 통일운동의 아버지가 아니다. 실패한 혁명가는 더욱 아니다. 그가 타계한지 15년이 지난 오늘, 장준하의 통일노선은 해방통일노선의 뿌리로서 더욱 빛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과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다. 항일독립투쟁에서 임정의 정통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지만 해방당시 항일세력의 최대과제는 바로 미소의 한반도 분할정착에 대항하는 통일전선의 수립이었으며, 따라서 임정이 미군정의 조처를 인정한 것은 정세판단의 중대한 오류였다는 것이다. 둘째, 김구의 통일노선에 대한 절대적 긍정이다. 그는 김구의 통일노선에 대해서 민족전선의 전경상을 제시, 민족화해의 실체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최초로 반봉건, 중서양국 체제에 도전, 한국민족통일의 세계사적 사명을 제시했다는 절대적 찬사를 보낸다.

것은 바로 통일이고, 그를 이끌노선은 민족통일전선이며, 그 주체는 민족세력의 실제인 민중이다. 그는 1) 유신폐기, 2) 일제잔재, 반민족세력의존적 세력집단해체, 3) 인간적인 삶, 항구적인 평화 그리고 민족통일운동의 뒷받침이 될 민주·민족화해 정권 확립을 통일전략의 실제로서 밝히고 있다. 장준하가 ‘사상계’를 거쳐치우고 박정권과 사생결단으로 싸운 실체가 민족통일 전선이라면 그것의 구체적인 방향은 정권교체이며 대립구조의 철폐이다.

유신·공포 정치에 항거하다 의문의 실족사 “통일 운동은 독재타도가 전제 돼야 한다”

장준하는 1975년 8월 17일 약사봉 등산길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장준하의 사인은 당시 대표적 의문사였으며, 의문의 실족사라는 부제하에 이 사건을 다룬 기사들은 박정권의 공포정치와 더불어 탄압의 표적이 되었다.)

장준하의 통일노선은 그의 죽음과 함께 끝난 것인가? 그의 활동궤적을 추적해 보면 장준하의 노선이 죽음으로 뒤덮일 뎡제가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된다. 장준하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일제하 항일독립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학병지원 후 곧 탈출하여 광복군 요원으로 입대함으로써 반제투쟁의 전선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혁명가 장준하가 통일노선을 확립하는 시기는 해방당시였다. 8·15직후 해방정국에 대해서 장준하는 이렇게 회고한 바 있다. 임정요인의 한국 당시 개인 자적으로서 고국에 돌아오게 한 것은 당시의 미군정이었다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임정의 최대과제였다.

장준하의 회고는 두가지 차원으로 해석된다. 첫째는, 임정의

1972년 7·4공동성명이 발표되고 같은 해 박정권의 공포정치의 시작, 유신시대가 개막되자 장준하는 이에 대해서 전면투쟁할 것을 선언하고 실천에 옮겼다. 여기서 우리는 장준하의 통일노선이 어떻게 방향을 잡는지 그의 유교(‘민족통일전략의 현대적’)를 통해서 검토해 볼 수 있다.

7·4성명의 문맥으로 보면 이것은 누가해도 그 이상도 이하도 만들 수 없는 민족통일의 대원칙이 부각되어 왔다. 따라서 7·4성명은 우리민족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 이놈을 우리민족의 현실앞에 걸어놓고 있으면, 국민간에 가짜와 진짜가 가려질 것이다. “박정권이 7·4성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준하의 통일노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는 그의 통일노선이 민족통일전선에 입각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모든 통일은 좋은가?’라는 질문을 만천하 대중에게 던졌을 때, 그 대답은 바로 이것이었다. 다시말해서 분단이 계속되고 세계사적 냉전이 이를 조장할 때 이에 반대되는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귀감이 되고 있는 그의 통일운동이 왜 ‘모든 통일은 좋은가?’라는 명제를 끄집어 냈는가를 다시 한번 밝힐 수 있다. 첫째, 한반도를 지배하는 본연의 힘은 분단이다. 따라서 분단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집결과 조직의 구축이 현대적 과제이다. 둘째, 통일보다 통일운동의 자유를 쟁취해야할 단계’라는 의미는 현대 통일운동의 방향은 곧 독재자를 몰아내는 것으로 집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것의 의미는 통일운동의 주력방향이 혼돈되고 있는 오늘날에 절실히 귀감되는 바이다. 그러나 ‘모든 통일은 좋은가?’라는 장준하의 통일노선도 오늘날 새롭게 해석되지 않으면 안된다. 60~70년대의 독재가 분단노선에 폭을 걸었던 것에 비해서, 오늘날의 독재는 흡수·통합통일을 공공연히 주장할 정도로 냉전구조가 세계사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인 선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원〉

사람을 소중히 꿈을 소중히



꿈을 실현하는 젊은이들 ⑤
모스크바대학 정치경제학부
1학년 박 상 준

내 젊음의 꿈은 모스크바의 겨울에도 얼지 않아요

너 이상 꿈꾸지 않는 도시, 모스크바— 예술도 혁명도 모두 과거의 한부분으로만 남아있을 뿐 그 넘치던 위대한 혼은 작은 생활들 속에 묻혀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지만 아직도 모스크바는 꿈꾸는 힘을 갖고 있어요. 다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요. 젊음의 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같아요.” 모스크바 대학의 첫번째 한국인 학생인 박상준(20)씨는 모스크바에서선 서울에서선 젊음의 꿈 거기서 비롯되는 가능성은 같은 것으로 믿고있다. “그 가능성은 변화에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변화가 매순간 일어나는 건 아니죠. 물이 계속 끓다가 어느순간 기체로 변하는 것처럼, 삶과 꿈의 반복이 ‘새로운 나’를 만드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의 말대로 러시아혁명도 그런 종류의 변화인지모른다. “모스크바도 지금은 잠자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겁니다. 모스크바에서 꿈을 키우는 멋진 한 한국청년처럼요.” 모스크바 대학이 서있는 레닌스키 언덕에는 간간히 내리는 진눈깨비와 함께 벌써 겨울이 시작되고 있다. “북구의 겨울은 유난히 길어요. 하지만 모든 생활활동이 멈추는 건 아니죠. 제 젊음의 가능성과 노력, 그리고 꿈도 멈추지 않을거구요.”

꿈을 향해 의지를 불태우는 젊은이들을 찾습니다. 내일을 간략히 적어 보내주세요. 재탄생 이야기! 대학생활고 소개하고 소망의 고리를 드리겠습니다. 보내실곳 : 서울 중로구 평동 108-2 제일기획 제작12국 대학지공고립 TEL. 724-0553

인재와 첨단기술의



● 계속해 원고주시 KOREA의 컴퓨터관리시스템에 관한 문의